

신입사원 연봉 5000만원 '신의직장'

"이익배분제로 회사 다닐 맛 나지만... 오래 일하긴 힘들어"

도전! 내가 뱅커다

② 금융권 대우는?

이익 초과달성땐 성과급 등 공유
여성 평균연봉 남성 60% 수준
근속년수 2년간 1년 가량 줄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신입사원의 연봉은 5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성별 간의 연봉이나 근속연도는 격차가 커다. 또 최근 은행들이 이익배분제를 도입하면서 성과급이 늘고 있다.

◆ 은행 신입연봉 5000만원 안팎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안팎이다.

KB국민은행 4800만~5000만원(군필자기준), 신한은행 4900만~5500만원, KEB하나은행 4800만원, 우리은행 5400만원, NH농협은행 4500만원(군미필 기준, 수당 제외금액) 수준이다.

이밖에 산업은행은 4640만원, 기업은행 4620만원, 수출입은행 4570만원, 기술보증기금 4240만원, 신용보증기금 422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3990만원, 예금보험공사 398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3900만원선이다. 은행권의 연봉과 근속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을 넘나드는 금융권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찾은 채용 희망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뉴스스

기간을 분석해보니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각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

행의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 근속·연봉 성차별 여전

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남성 1인 평균 급여는 1억1000만원으로 여성

(7100만원)보다 3900만원(35%) 많았다. 신한은행의 남성 1인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6600만원에 그쳤고, KEB하나은행도 남성(1억2100만원)과 여성(7300만원)의 급여 차이가 4800만원이나 났다.

이는 여성직원이 상당수가 은행의 하위직군인 텔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 임직원의 평균 근속기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4~8년 정도 길다.

지난해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근속년수는 우리은행(16년3개월)·국민은행(16년2개월)·신한은행(15년)·하나은행(14년)·기업은행(12년10개월) 순이다.

특히 남성 은행원의 경우 국민은행이 20년4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우리은행(18년4개월), 하나은행(17년), 신한은행(17년), 기업은행(16년1개월) 순이었다.

최근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지면서 남성 은행원의 근속기간도 타격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당시 남성 은행원의 근속년수가 21년4개월이었다. 우리은행도 2015년 당시 19년3개월이었다. 하나은행도 17년7개월이었다. 2년만에 1년 가량 줄어든 셈이다.

여성 은행원의 경우 우리은행이 14년5개월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하나은행(13년), 신한은행(12년6개월), 국민은행(11년8개월), 기업은행(10년3개월) 순이었다.

한편 금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대 후반에서 9000만원대 후반,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11개월~17년 5개월의 분포를 나타냈다.

◆ 이익배분제로 사기진작

지난해부터 은행마다 기존 성과연봉제 대신 이익 배분제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초과 이익분 배 방식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익배분제는 당초 목표한 것보다 이익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주식 등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은 순이익 목표치를 정하고 연간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분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KEB하나은행 역시 옛 하나은행의 이익배분제를 옛 외환은행 임직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성과연봉제와 달리 이익배분제는 사전에 정해진 명확한 지표대로 지급돼 노사간 문제 발생 소지가 적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올 상반기 저축은행 순이익 5613억

늘어난 대출에 전년比 13.8%↑

늘어난 대출에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이자이익이 2조원을 넘어서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은 56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손충당금전입액이 늘었지만 이자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졌다.

이자이익은 상반기 2조4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었다.

총자산은 6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0% 증가했다.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및 보유 유가증권이 각각 4조원, 4000억원, 918억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대비 6.4% 증가한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

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6%포인트나 하락하면서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49%로 지난해 말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7~8% 대비 높은 수준이다.

김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고금리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KB금융, 中 자산운용시장으로 발 넓힌다

KB자산운용, 상하이 법인 설립

中 리서치 역량강화 사업 모색

KB금융그룹이 비은행 계열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4일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법인인 '상해 카이보 상무자문 유한공사' 설립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의 해외진출은 지난해 아시아지역 헤지펀드 시장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설립 기념식에는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과 KB자산운용 조재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홍매 초대 법인장은 연변과학기술대학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중국시장 경제분석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

상하이 카이보 상무자문 유한공사는 중국펀드 운용규모 확대에 따른 중국시장의 리서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향후 중국 시장과 관련된 사업기회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출시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왼쪽 네번째)과 KB자산운용 조재민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4일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법인인 상하이 카이보 상무자문 유한공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중국시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입한 해외공모펀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주식형펀드 규모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8조3000억원에 달한다.

KB자산운용은 중국본토와 홍콩 등에 1조7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중국관련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공모주식펀드 운용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대표 펀드로는 KB중국본토A주펀드(설정액 5631억원), KB통중국고배당펀

드(2924억원), KB통중국글로스펀드(1065억원), KB스타중국본토CSI인덱스펀드(235억원) 등이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중국은 올해 금융업에 대한 대외개방 추진 원칙을 마련하는 등 많은 기회가 예상되는 시장"이라며 "KB자산운용의 중국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등의 중국사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대고객 감사이벤트 쏟아져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 제공

신한은행은 5일 대고객 감사이벤트를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고객 감사이벤트는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텐텐 이벤트'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한 SOL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예금, 적금, 펀드, 청약, 펀드, 신탁 중 하나를 최초로 10만원 이상 신규하고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을 대상 추첨을 통해 1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여행상품권 100만원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거래 고객과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풍성한 고객 감사이벤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KB국민은행은 5일 비대면 채널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KB 스타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KB 스타 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가입 가능한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개월에서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KB 스타 정기예금은 신규가입 시자동 해지와 자동 재예치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계약기간 중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분할인출 기능을 활용해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다. 인출 원금을 제외한 정기예금 잔액에 대해서서 약정 금리가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